

시론

혼란 속에서도 교육의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



조영서 주월초 교사

최근의 사회적 혼란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게임 선포와 입법, 사법부에 대한 폭력 등 일련의 사태는 참담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따름이다. 시민 의식의 약화, 연대 의식과 신뢰 부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는 없다. 오히려 교육은 혼란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방향을 분명히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데 있다. 사회적 혼란은 종종 이러한 본질을 위협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교육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정서적 안정과 공감도 교육의 영역이다. 학생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 폭력과 갈등은 개인주의적 사고와 사회적 소외에서 비롯되기 쉬우므로 교육은 학생들이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감을 느끼고, 협력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따뜻한 경험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학생들이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경험을 공유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교실 말이다.

특히 교육은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혼란은 곧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교육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에서는 잘못된 정보와 선동이 쉽게 퍼질 수 있다. 다양한 매체가 늘어나고 AI가 발전해 가는 미래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실에서는 사회 문제를 탐구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 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프로젝트 학습과 토론 수업을 연계하여 주제를 심도 있게 배우고 이를 토대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실력을 지녀야 한다. 아울러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학문의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 아이들이 수학, 과학과 같은 기초 학문을 배우면서 사고를 심화하고 사유의 시간을 가지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차원의 세계에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더불어 수학, 과학 등과 같은 기초 학문을 실생활 문제와 연결해 학생들이 학습의 실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과 밀접한 지역사회와 우리 이웃, 나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 등을 통해 기초 학문의 학습 동기를 강화한다던 더 많은 아이들이 실력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혼란은 교육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 교육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본질적 방향은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면서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은 희망의 플랫폼이다. 혼란은 일시적이지만, 교육의 본질은 영속적이다. 우리 광주교육은 아이들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본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단순히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묻는 과정이다. 혼란 속에서도 교육의 방향은 분명해야 하며, 본질을 잊지 않은 교육만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우리 광주교육이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社說

‘내란은 진행형’...민주주의 수호 대개혁 제안 관심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위헌적인 불법 내란과 극단의 폭력을 낳은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개혁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다음 달 광주 선언문 낭독,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순차 진행할 계획으로 전국민과 연대하는 다짐들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피파으로 이론 민주주의 성취를 퇴행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가 전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가치를 공격하는 극우주의자들의 발호, 이를 정당화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를 뿌리뽑지 못한다면 내란은 계속될 것이다. 12.3 계엄 발생 한 달을 훌쩍 넘겨 50일이 됐지만 혼란은 좀체 수습되지 않고 있다. 불안한 사회의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 서둘러 헌정 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

내란 수교 협의를 받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다. 사법 당국의 수사는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쪽지 전달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잡아떼면서 지지권 결집에만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철두고 난 이후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적반하장식 연사를 이어갔다.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극렬 폭도들의 1·19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는 사법부의 근간을 훼손한 역대 초유의 사건이다. 또 유튜브를 통해 저항권 발동으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망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구속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현재의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아울러 내란 동조자와 법원 폭동 사주 및 선동세력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기구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을 출범했다. 민주 시민들의 지혜와 열망이 담긴 제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항공 추모식 당일 화순군 공무원 도박 엄중하다

전남경찰청이 화순군 공무원 4명과 건설업 관계자가 도박 중이던 현장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 무안공항에서 거행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 당일이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 설 명절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의 예방을 위해 올해 제1호 청렴주의보가 발령된 다음 날이기도 했다. 무고히 희생된 화순 주민이 13명이고, 전·현직 공직자가 8명이나 됐다. 지역 사회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규모 사고 등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복무 기간 확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소속 인력이 상주하며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는 이미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까지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의 결론에 따라 적용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직 기간 해이가 도를 한참 넘었다. 일각에선 건설·건축 분야와 관련있는 직역의 6급 이상 간 부급으로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돈을 일부러 잃어주는 접대성에 무게

가 실렸다. 경찰이 정보 등을 입수해 임의 수사에 나섰던 터라 주기적으로 이뤄졌을 소지도 크다. 화순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직인 점을 감안해 우선 4급(국장급) 해당자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매우 중대하다. 결코 예상못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제주항공 참변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수의 공무원이 고질적 비위에 연루됐을 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번지고 있다. 당국의 사실상 특별 감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군청 안팎은 어수선하다. 불의의 사고로 동료들 떠나보낸 다른 직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 주민들도 참담하다.

불법부당한 거래가 충분히 의심되고 있다. 도박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집중 수사해야 한다. 또한 책임을 엄히 물어 처벌해야 한다. 전남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지금 화순군을 주시하고 있다.

의료칼럼



곽희호 목포청연한방병원장

빙판길에 발목이 삐끗하는 ‘발목염좌’

목 인대 파열, 발목뼈 골절이 나타나 보행이 제한되기도 한다.

발목염좌의 진단은 문진, 이학적 검사, 영상검사를 활용한다. 우선 염좌 당시 발목이 꺾인 방향을 물어보고, 염증성 통증의 네 가지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학적 검사는 전방 당김 검사(Anterior drawer test)를 실시하며, 앉은 자세에서 환자의 다리를 살짝 들어올려 종아리를 잡은 상태에서 발목을 앞쪽으로 당겨본다. 검사에서 통증이 심하면 인대의 염좌를 의미한다.

발목염좌는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종아리뼈의 외측 복사 부위, 제 5번 중족골의 근위부에 골절이 호발한다. 손상 이후 네 걸음도 못 걸거나, 정강이뼈나 종아리뼈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다면 골절을 의심해 X-ray, CT 등의 영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인대파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 MR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치료기간은 손상시점으로부터 4-6주 가량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인대는 근육보다 훨씬 단단한 조직으로 이뤄져 혈액순환이 더디기 때문에 회복속도가 느리다. 손상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만성 재발성 염좌나 연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염좌 발생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생활관

리로는 ‘RICE 기법’이 있다. R(Rest)은 발목을 쓰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하고, I(Ice)는 염증성 통증으로 붓고 아픈면 아이스팩을 처치해주는 것이 좋다. C(Compression)은 늘어난 인대를 보충해나 압박붕대를 착용해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E(Elevation)은 부종을 방지하기위해 누운 자세에서 발목을 심장 위치보다 높게 거상시켜주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발목염좌에는 한방치료가 효과적이다. 침구치료, 한약치료를 주로 시행한다. 침치료 중에서 일반침은 인대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고, 약침은 관절의 염증성 통증을 억제해 준다. 그리고 도침치료는 인대에 미세손상을 일으켜 인대의 자가회복력을 끌어올려준다. 전거비인대에 해당하는 구허(丘墟)혈, 종비인대에 해당하는 신맥(申脈)혈에 직접 침을 자입해 시술한다.

한약치료는 어혈과 염증을 해소해준다. 염증은 한의학에서 어혈로 보아 이를 풀어주는 당귀수산(當歸瀉散)과 부종을 줄여주는 오령산(五苓散)을 합방하여 발목염좌의 통증을 개선해준다.

발목염좌는 대부분 경험하는 흔한 부상이지만,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바란다.

한파가 심한 겨울에는 빙판길에서 관절을 삐끗하는 염좌와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에 발목염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발목염좌의 정의는 활동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발목이 접질려 발목관절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것이다. 발목염좌의 85%는 발목의 외측 통증을 호소하며, 이는 발바닥이 몸 안쪽 방향으로 뒤틀리는 내반염좌에 해당한다.

인대는 뼈 사이에 붙어서 탈골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결합시켜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발목의 외측에는 6개의 인대가 존재하는데 이 중 전거비인대, 전하경비인대, 종비인대 세 부위가 잘 손상된다.

발목을 삐끗하면 발목 부위에 통증, 부종, 발적(發赤), 열감을 호소한다. 네 가지 증상은 급성 염증을 시사한다. 심한 경우에는 발

명절 인터넷 사기 주의...예방이 최선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택배 배송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배송 불가’ 등의 문자를 통해 피해자를 당황시킨 후,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 링크를 통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결제하지 않은 상품이 결제됐다든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업체로 전화를 하게 만든 후 경찰을 사칭해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아야 한다. 택배 관련 문자나 경찰 신고는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악성코드를 삭제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이버 범죄는 피해 발생 후 회복이 매우 어렵다. 기본적인 예방법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사이버 범죄 예방법을 공유하며 안전한 명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사이버 범죄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와 메시지에 주의하길 바란다.

〈김민중·장흥경찰서 관선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기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그래픽 뉴스

11월 출생아 2만95명...증가폭·증가율 14년 만에 최대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천500명 넘게 늘면서 14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2천565명(14.6%) 증가했다.

2010년 11월 6천146명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 폭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2010년 11월 17.5% 이후 가장 높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2만7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21만3천727명)를 웃돌았다.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사망자는 2만9천219명으로 1년 전보다 1천145명(3.8%)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1월 인구는 9천124명 자연 감소했다. 11월 혼인 건수는 1만8천58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천887건(11.3%) 증가했다. 11월 기준 증가 폭은 2015년 2천445건, 증가율은 2010년 12.3% 이후 최대다.



출생아수 추이 연도별 1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14.6% 출생아수 20,095명 17,530명 18,981명 19,829명 20,054명 23,727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잠정) 연합뉴스 자료:통계청

독자투고



명절에 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 유형으로는 열차 승차권, 상품권, 숙박권 등을 높은 할인율로 제시해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거래 유도 사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우선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카드 결제나 안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며, 거래 전에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이버법’ 어플을 통해 상대방 계좌정보나 전화번호에 대한 사기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전거래 사이트조차도 사칭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의 정당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택배 이용량이 급증하는 명절에는 택배를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내용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日) 제·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